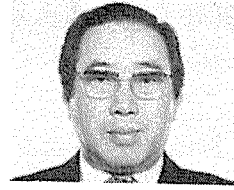


# 內需基盤 구축으로 國際 경쟁력 강화하자



崔 亨 奎  
大韓電線(株)代表理事

돌이켜 보건데 1981年은 우리 電子工業 20年史에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電子工業에 對한 國民의 理解와 關心이 높았으며, 持續의이고 安定的인 成長基盤 構築을 爲해, 政府當局이나 業界에서 無限한 正성과 努力을 기울여 劃期的인 政策的 지원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한해였다. 效率의인 전자공업의 振興과 高度化를 위해, 우리 電子工業人 모두의 念願이었던 電子工業振興法이 改正된 바 있다. 전자공업의 長期的인 高度化推進, 電子器機 等の 國產化促進, 電子工業 振興基金의 造成 等 전자공업이 80年代 핵심전략 산업으로서 成長할 수 있는 法的, 制度的 基盤이 造成되었다.

周知하다시피, 오늘날 전자공업은 그 나라 國力의 상징이며, 電子技術은 앞으로의 産業發展을 主導할 核心技術이다.

航空宇宙産業으로부터, 産業機械, 情報處理, 장난감 등에 이르기까지 半導體, Computer 等 전자기술의 應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美國은 오는 84年까지 政府主導로 2億弗 以上을 投入하여, 國防宇宙用的 새로운 VHSIC開發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日本도 人間頭腦와 같은 2천년대型 제5世代 Computer 開發을 爲해 10個年에 걸쳐 千억円을 投入할 計劃으로 되어있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대만이 지난 80年부터 10年間 電子分野에 對한 無제한 外資導入을 허용하는 等 전자공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세워 先進대열에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國內外 여건下에서 電子工業을 80年代 核心전략 産業으로 選定 5차 5개년 計劃期間 동안 VTR, 半導體, Computer, 전자교환기 등 첨단기술의 전자공업을 중점 育成하되, 家庭用 電子器機는 新規品을 開發 수출 주도형으로, 半導體 Computer 등 産業用 電子器機는 政府部門의 주요 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형으로, 電子部品은 自立自給型으로 部門別 집중 개발하여, 지금까지 量的 成長에 치우쳐온 電子工業을 앞으로는 技術開發을 통한 質的 高度化에 力點을 두게 되었으며, 사업 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반도체 Computer 등을 政府主導의 國策研究

事業으로 推進키로 한 것은 電子工業發展을 위하여 극히 鼓舞的인 이고 多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온 國民을 열광케한 88 서울올림픽 確定은 電子工業發展에 새로운 活氣를 불어 넣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 期間中 컬러TV를 비롯한 VTR, VDP, PROJECTION TV, CCTV 및 가정용 Computer, 음성 다중방송 방식 등이 대중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컬러TV는 現在 20%線의 보급율에서 90%線까지 올라가 수출경쟁력이 充分히 確保될 것이며 各種 VIDEO 제품도 확고한 내수기반 위에 수출 산업화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분야에서 는 기계식 교환기 System이 서 들러서 ESS로 電子化되어 만성 적인 전화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이며, 現在 시험단계인 光通信의 實用化를 앞당기고, 初期導入 단계인 FAX 및 DATA 통신 등의 보급확대, 非電話계통의 정보 System 확충 등이 전망된다.

특히 80년대 과학기술의 토착화, 기술 개발의 國際化를 위하여, 82年부터 대통령령이 직접 기술진흥확대 회의를 주재, 종래 산

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과학기술 개발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케 하며,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企業化를 위한 자금지원 기관으로 81년 5월 기술개발(주)를 설립한 것은 과학기술 개발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發展 과정을 돌이켜보면, 과거 10년간 年平均 40% 이상의 놀라운 成長을 이룩하여 세계 10位권의 전자공업국으로 浮上하였으나, 素材 또는 部品공업의 確固한 基盤이나 技術開發의 노력없이 低質에 依한 單純組立 形態로서 量的 膨창에 主力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급격한 技術혁신으로 新技術, 新製品이 경쟁하는 世界市場에서 先進國의 技術移轉 기피, 새로운 商品 개발력의 결여, 勞賃의 急上昇,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부터의 不斷한 도전 世界的인 경기침체로 因한 需要감퇴, 보호무역주의, 자금난 등으로 서서히 國際 경쟁력의 限界性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81 年の 國內外 경제여건은 만성적 인 경기 침체와 Inflation의 계속, 미국의 高金利政策 등으로 不況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해였 다. 한편 國內 景氣는 年初 반짝 하던 輸出 및 內需 景氣에 힘입 어 다소 好轉되는 듯 했으나, 下 半期부터 國內外 需要不振, 物價 安定을 위한 通貨緊縮, 高金利에 依한 過重한 금융 비용 부담 等으로 企業의 財務構造가 크게 惡化 되었으며, 換率의 非現實化로 輸出 경쟁력을 상실, 수출신용장 來 到額 및 輸出伸張勢가 둔화되어, 國內 景氣回復의 遲延 및 82年度 景氣展望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來年度 國際經濟 또한 밝다 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세계 적인 高金利 下向추세, 원유를 비 룯한 국제 원자재 값의 安定 等으로 82年 下半期부터 美國 경제를 中心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들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여러 요인에 따라 可變的이어서 불투명한 狀態이다,

이러한 國內外의 으로 어려운 여 진下에서 우리의 電子工業을 重化 學 핵심산업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안정적인 成長을 시키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確固한 內需基 盤 구축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 의 뒷받침을 위하여 특별 소비세 가 잠정인하 되고, 수요자 금융

이 小規模로나마 실시된 것은 매우 多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자금난을 完化하고, 내 수시장 基盤을 좀더 確固하기 위 해서는 신용할부 판매회사의 早期設立 및 수요자 금융의 확대, 特소세의 대폭 인하 및 장기할부 판매에 대응하는 一定期間后의 分納制實施, 新모델 개발과 기술 향상을 촉진키 위해 가전 제품에 對한 가격관리의 完전자율화,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술 도입의 자유화 등 後續 보완조치가 강구 되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는 大 望의 80年代 복지사회 건설을 위 한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計 劃 施行 一次年度를 맞게 되었다.

점점 가속화 되는 국제경쟁 環 境속에서 86年 전자수출 70 億불 달성 및 90년대 전자공업 大國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 업은 물론 온국민의 이해와 상호 협조下에 不斷한 努力을 경주해 야할 것이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전자공업인 여러분들의 無窮한 발전과 번영 있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우리 전 자산업의 순조로운 전진을 기대 해 마지않는 바이다.

## 기술축적을 위한 刻癖의 한해를 보내며



趙東植

東原電子(株) 代表理事

나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2가지의 병(病)을 앓는 습관이 있다. 企業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도의 차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지나온 과거 1년에 대한 커다란 후회와 自信에 對한 무자비한 채찍질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에 다가올 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病을 고쳐 줄 만한 特效약이나 주사약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것을 發見하지 못했다. 늘쌈 어금니를 꼭 깨물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한번 해보자하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 동안의 가장 의미있는 것을 꼽으란다면 國內의 物價가 安定될 기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당장 물가가 잡히고 국제 경쟁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것은 아니라 손 치더라도 앞으로 韓國經濟가 바른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電子業界 특히 AUDIO 業界로 보아서 81년은 별 다른 특색이 없는 한해였던 것 같다.

단지 어느때 보다도 어려웠다는 기억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國際적으로는 경기침체, 日本 業体の 價格덤핑 등으로 구미 선진국 굴지의 業界들이 속속 도산을 하였고 심지어는 내년이면 AUDIO 市場의 商權의 再編이 불가피 하

리라는 見解가 구미선진 各國에서 公共然히 나돌고 있고 國內의 으로서도 國民들의 實質所得 감퇴에 의한 구매력 감퇴에 결들여 Colour TV에 많은 구매력을 빼앗기다보니 오디오 업계는 그야말로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가는 격이 되고 말았다.

상품의 특성상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음향기기 분야에는 한쪽 손으로 꼽아도 한들의 손가락이 남을 정도의 전문업체들이 거의 명맥을 이어왔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어느 업체는 81년에 많은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서글플 뿐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보기 위하여 生産性 向上 對策이나, 特消稅인하 등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라는 생각은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우리 東原電子의 입장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年初에 計劃하였던 일의 많은 부분을 달성하였다. 매출액면에서 약 90% 정도가 달성될 것이 전망되고 오디오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企業公開를 實施하였고, 業務科學化를 위하여 業務電算化도 實施중에 있으며 東原의 숙원이었던 신축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하였으며 自社 商標輸出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美國에 이어 日本과 유럽에 지사를 설치 하였으며, 勞使間의 協議體를 구성하여

원만한 勞使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로 우리 會社의 目標와 實績은 비교적 수준급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AUDIO 業界에 世界 最첨단 기술인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플레이어 시스템 기술을 최초로 소개하여 국내업계에 자극과 용기를 주었던 일은 기억할 만한 일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신제품 개발의 지연으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던지, 生産性 向上과 品質 向上이 무언가 기대 수준을 이룩하지 못하였다던지 아직도 計劃生産의 단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수주 생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하여 外部環境 變化에 의한 生産의 不安定 등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는 것 같다.

韓國에서 第一가는 음향기기 메이커가 되겠다는 나의 꿈이 이제는 世界에서 第一가는 음향기기 업체로 發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이제 한해를 또 보내면서 몇년 후에 나의 이러한 꿈을 이룩하여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다 보면 아직도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험난하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을 내년에는 내년의 目標에 덧붙여 完成하여야 하겠다. 賣出額 신장이 적어도 35%는 이룩하여야 되겠고 특히 輸出

에 있어서는 50% 이상의 신장을 하지 않으면 國內경기의 완만한 회복기 동안을 살아 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 新製品 開發에서도 量産性이 우수하고 값싼 생산 원가로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적어도 20여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생산性 向上, 해외시장 구축, 管理의 科學化 이 모두가 來年 우리가 이루어 내어야 하는 과제이다. 물론 어느 업체이건 간에 자기가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일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를 뒷받침 하여주는 政策當國者나 지원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성 있는 조치들이 부단히 뒷받침을 하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내수경기를 좀더 활성화 시켜주어야 되겠고, 불량없는 제품, 높은 품질의 製品을 生産하기 위하여 部品業體에 대한 근본적인 育成 政策을 確立하여 주어야겠다.

韓·日貿易 역조만을 탓하고 있

을 것이 아니고 전량을 日本에서 輸入하여야 하는 반도체류에 대한 政府의 實用性있는 대책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반도체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컴퓨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언어 도단이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빨리 알면서 그것을 언제 어떤 순서에 의하여 한정된 능력과 자원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결국은 시행 착오를 이루게 마련이다. 전자공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電子工業振興會의 역할을 한번 반성하여 보아야 될 것 같다. 물론 다른 業界보다는 나을런지 모르지만 보다 강력하고, 업계를 끌어 갈만한 협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업계에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일본의 電子工業年間 수출액이 약 200억弗 정도이다. 이는 한국 전체의 수출 금액과 거의 맞먹

는 수자이다. 한국전자공업의 수출은 20억불 선이다. 결국 일본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언제 일본을 한국이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전체 電子業體의 힘이 한쪽 방향으로 모아져도 적어도 몇십년을 걸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힘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은 커녕 앞으로 끄는 사람에,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 옆으로 당기는 사람 가지각색이다. 줄다리를 걸 때 어느 한사람이 응원 것발을 가지고 하나 둘 셋을 맞추어 주면 일시에 힘이 한 곳으로 모여 줄다리에 이기게 된다. 한국 전자공업에 누가 응원 것발을 들고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 정책 당국자나 업체 모두가 신중히 생각하여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서투나마 하나 둘 셋의 구령을 붙여보는 연습이라도 시작했으면 한다.

## 国産化의

# Video Tape에 쏟은 정열



李 起 東  
鮮京化学(株)社長

누구나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기에선 항상 悔恨과 期待의 鬱찬 感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1981年은 참으로 鮮京化学株式會社에게는 意義 깊은 한해였습니다.

鮮京化学株式會社로서는, 이제 막 出發線을 스타트한 走者처럼, 活力과 意志로서 비디오 테이프

事業이 추진되어온 한해였기 때문입니다.

鮮京化学株式会社는 정부의 기술집약 및 전자 정밀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선경(鮮京) 그룹의 기술집약 산업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화학 분야의 기술집약 산업인 포리에스텔 필름 제조를 위해 1976년 12월에 설립됨에 따라, 전자 산업의 기초 원자재로 사용되며, 全量 수입에 의존해오던 포리에스텔 필름 제조 기술을 1977년 12월에 KAIST(韓國科學技術院)와 더불어 개발 완료 및 始製品 生産에 성공하여 1978년 6월에 대량 생산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리에스텔 필름이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해 세계에서 3번째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自体 개발에 성공한 이래 鮮京化学株式会社는 多數의 后加工製品 製造技術을 개발하였지만, 그 중 가장 기술 집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 事業에 진출할 것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 製造技術은 고도의 초전자 정밀 기술을 요함으로서 그동안 미국, 일본, 서독 등 선진 소수 국가의 독점 기술로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高附加價值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그들의 기술을 가능하면 오래도록 독점하여 독점 생산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 하는 그들의 속셈으로, 타국에 그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에 鮮京化学株式会社는 1977년 11日 비디오 테이프 事業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한 이후 본

사업을 위한 각종 設備 및 製造 技術上的 각종 特許, 文獻, 情報의 綜合資料 整理 및 프로젝트팀을 선진국에 파견, 上記 資料에 대한 확인 및 연구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1979년 2月부터 설비 발주 및 실험실 연구활동을 계속, 공장 설치와 동시에 운전상의 Know-How를 정립하여 1980년 12月 드디어 始製品 生産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피나는 노력 끝에 순수 국내 자본 및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해, 미국, 일본, 서독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비디오 테이프는 진실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1953년 RCA에서 칼라 TV 녹화 연구 발표 이후, 1973년 TDK, Fuji 등에서 Cobalt를 첨가한 고밀도 비디오 테이프를 개발하기까지 映像 및 音響을 동시에 녹화 및 재생할 수 있는 비데오 테이프 개발 역사는 실로 급격히 발전해 온 近世 전자산업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한편 비디오 테이프는 20세기 전자 산업의 금자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영상 기록을 위한 매체로서 TV로 녹화와 비디오 카메라로부터의 녹화, 다른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로부터의 복사 등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여행용, 자료조사용, 오락 프로용 등의 가정용 뿐만 아니라 교육용, 산업용, 공업용, 등 그 사용 범위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 관심의 도가 더

해가는 비디오는 앞으로의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1978년부터 폭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 가고 있는 비디오 인구는 점차 그 도를 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의 세계 시장은 VTR의 보급 확대에 따라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1981년 1月 현재 세계 VTR의 보급대수는 약 1,000만대 수준(1981년 말에는 약 2,000만대 추정)으로 16억불 이상(1981년 말에는 약 32억불)이 되며, 세계 수요가 연간 약 50% 이상의 급신장 추세이므로 1985년 말에는 약 50억불,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약 100억불의 시장 상품이 되어 鮮京化学株式会社의 약 10% Market Share만으로도 單一品目으로 연간 약 10억불의 수출을 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인 비디오 테이프의 수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의한 生産이므로 기술 도입으로 인한 수출 제한 조건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공업 수준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일본 기업들과 같은 양산 체제를 갖추고 Brand만 널리 인식 시킨다면 1980년대 말의 100억불 시장을 우리의 장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 12月 개발 완료후 1981년 1월에 생산 개시, 1981년 후반 부터 대량 생산 및 본격 수출에 돌입하여 1981年度 연간 수출 실적은 약 1,500만불에 달했습니다. 1982年度 수

출 목표는 약 5000만불로서 그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건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비디오처럼 人間에게 이익이 큰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디오 테이프의 充分한 國産·供給에 따라서, 國民生活 向上을 위해, 비디오 관련제품들의 自由스럽고, 활발한 國內

供給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디오 관련 제품들의 조세 경감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포리에스텔 필름의 후 가공 제품으로서 많은 제품이 개발이 되어 왔으며 후 가공 제품 중에서도 초 정밀 제조 기술을 요하는 비디오 테이프 개발의 여세

를 몰아 鮮京化学株式会社는 계속하여 다른 초 정밀 후 가공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 만이 선진 韓國의 앞날을 보장한다는 鮮京化学株式会社의 확신은 우리 모두의 확신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 景氣침체의 現實과 조우한 '81年度 電子業界



李 賢 相  
三量電子(株) 전무이사

지난해 우리 經濟는 전 세계적 인 景氣沈滯, 先進 工業國들의 新保護貿易政策 強化, 2次에 걸친 油價波動, 國內의 政治的 변화 등 여러요인 때문에 70年代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는 등, 産業 전반에 걸쳐 景氣 沈滯의 狀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을 들어서는 經濟가 조금씩 回復勢를 나타내고 輸出 部門을 中心으로 一部 國內市場이 好調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지난 4월을 고비로 景氣回復을 主導해 온 信用狀 來渡 및 輸出 伸張勢가 鈍化되고 國內 景氣도 消費·投資 등 內需閑聯 指標의 伸張 鈍化가 계속되고 있다. 내년에도 世界 景氣의 回復 遲延, 油價 上昇 등의 物價 不安, 實質所得 減少 및 農村購買力의 위축 등

으로 빠른 시일내의 景氣 回復의 기대는 어려우며, 政府의 政策基調도 物價 抑制를 위한 緊縮政策에 바탕을 두고 있어 美國 등 先進國들의 景氣回復 趨勢와 함께 '82年 下半期에 가서야 다소 回復될 전망이다.

電子工業도 마찬가지로 70年代年 50%의 높은 成張率을 實現하다가 '80년에는 電子工業 最初의 마이너스 成長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컬러 TV의 放映 및 需要者 金融의 실시와 輸出增大에 힘입어 전자업계는 올 上半期에는 売出의 急伸張을 보였으나, 下半期 이후 컬러 TV를 비롯한 主要 製品의 需要減退로 營業 収支가 上半期 黒字에서 下半期 赤字로 反轉되고, 在庫水準 역시 上半期の 倍以上 늘어났다.

이것은 國內的으로 景氣回復 展望의 불투명, 實質 所得의 감소, 需要者 金融의 中斷 및 海外 要因으로 台灣 등의 輸出 競争國에 비하여 相對的인 競争力 弱화, 美國 등 先進國 景氣의 沈滯 局面 持續, 高附加價值 商品으로의 移行을 위한 技術 및 資本 蓄積의 未備 등의 諸要因에 기인한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水準이 높고 풍부한 勞動力을 가지고 있으며, 産業資本에 의한 企業力이 強하며, 政府指導下에 産業 構造의 高度化 政策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電子工業의 基盤을 다지고 있으므로 電子工業의 未來는 밝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에 있어서 第2의 도약을 위한 轉機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결

러 TV의 放映 및 電子工業 高度化計劃을 根幹으로 한 經濟 開發 5次 5年計劃 中の 電子工業 育成計劃 그리고 '88年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特別景氣 등이 바로 그것이다.

政府는 先進工業 構造의 實現 및 '86年 電子製品 輸出目標 69億佛 達成 및 世界 5位圈의 電子工業國으로의 成長을 위하여 附加價值가 낮은 家庭用 機器 中心의 電子産業 構造를 과감히 탈피하여 半導體, 컴퓨터, 通信 등 産業用機器를 中心으로한 電子工業 育成方案을 마련하였다. 이는 技術開發 基盤을 토대로 하여 質의 構造高度化, 核心部門의 集中 支援, 企業의 自律的 成長 誘導 및 國際競爭體制 確立을 基本目標로 하여 生産基盤의 強化, 技術開發의 促進, 內需 基盤의 拡充, 持續的 輸出增大, 支援制度의 補強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電子製品에 對한 內需基盤을 擴充하기 위하여 特消稅 引下를 檢討하고 있으며, 특히 VTR 및 전자 렌지 등 技術革新型 製品에 對한 特消稅를 減免시켰으며, 비록 今年 5월 1일로 家電製品에 對한 限度 消塵으로 사실상 中斷된 需要者 金融의 實施도 消費 金融 制度의 導入이라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 하겠다. '88年 올림픽 開催地가 서울로 決定됨에 따라서 '88年 까지 電子·電氣·通信 分野에 1兆원의 新規 需要의 創出이 予想되므로 이에 따라 電子業界의 技

術蓄積 및 新製品 開發로 有望品 目的 量産體制를 위한 轉機를 마련해준 것이라 하겠다.

電子技術은 앞으로의 産業發展을 主導할 核心技術이며, 向后 모은 産業部門에 응용되어 電子 産業의 高度化의 實現이 바로 産業 構造의 高度化의 實現이라 할 수 있다. 이의 實現을 위하여 業界와 政府는 電子工業 育成 方案을 強力하게 실행함은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은 조속히 改善해 나가야 할 것이다.

政府 政策의 次元에서 改善해야 할 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半導體 등 선단기술 부문에 重點 支援하여야 한다. 즉 資金의 支援幅을 擴大하고 이 資金의 金利를 引下하여야 하며, 政府 次元에서의 技術導入 推進 및 施設財 導入時 関稅減免幅 및 品目を 擴大시켜야 한다.

둘째, 特消稅率을 國際 水準化하여야 한다. 生必品化된 家電製品의 低所得層 普及의 擴大로 所得階層間 文化生活的 격차를 줄이고, 國民總和 意識을 造成하며 擴充하여야 한다. 또 低所得層에 對한 長期分割 販賣 및 間接稅의 先納制에 依한 企業의 資金負擔을 減어주기 위해 세금징수 및 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納稅 制度의 改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需要者 金融을 계속적으로 擴大實施하여야 한다. 現在 流通 市場에 머물러 있는 流通在庫에 對한 利子 負擔은 生産者가 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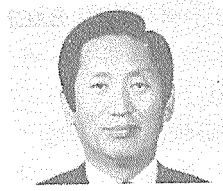
担하고 있어 研究開發 投資 및 品質 自動化에 對한 合理化 投資가 不可한 狀態이다. 企業의 資金負擔을 減어주고 流通秩序確立 (Dumping 防止 및 Black Market 根絶)을 위하여 계속적인 擴大實施가 必要하며, 궁극적으로 信用販賣會社의 設立을 위한 資金을 支援하여야 한다.

물론 業界에서도 지금까지의 低賃金을 背景으로한 部品 및 家庭用機器 中心의 輸出을 탈피하고, 대부분의 製品을 先進國의 技術導入 또는 단순복사 등의 形態를 轉換하여 Set의 復合化, IC化, 省力化를 포함한 新製品의 開發 方向을 고려하여 綜合 技術力을 縮積해 나가며, 企業 内部의 非效率의 要素를 除去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原價를 節減할 수 있는 UA 및 VE의 추진과 自動化·省力化를 위한 투자 및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 제품의 고급·안정화를 이뤄야하며 보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현지 생산판매 방식의 수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자율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정부와 업계가 전심전력으로 전자 공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비록 자원 부족국이지만 이런 불리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유리한 여러조건 등을 살려 밝은 전자공업의 내일을 펼칠 것이다.

# 輸出先頭를 위해 분주했던 布石의 '81年을 보내며



權 赫 祚  
東洋精密工業(株) 專務理事

'81年度는 4次 5個年 計劃을 마무리 짓는 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OPC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바쁜 한해 였다고 생각 합니다.

돌이켜 보면 OPC는 1953年 創立 以來 産業用 電子機器 專門 製造業체로서 1960年代에는 国内 最初로 自動 交換機의 國産化를 完了 하였고 無線 通信機器 分野에서 船舶用 無線機 및 軍用 無線電機를 國産化 하였고, 1970年代에는 시스템 産業 發掘이라는 기치아래 時分割 電子交換機의 國産化에 排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0年代에는 農漁村 交換機 專門 메이커로 指定 되었고 이에 技術 蓄積의 必然性이 나타남에 따라 시스템 産業의 土台를 構築해 왔습니다. 특히 81年은 우리 OPC로서는 外形面으로서도 前年對比 倍에 가까운 伸張을 했으며 그중 産業用 機器의 輸出 戰線에 本格的으로 進出하여 그 結實을 얻은 해였습니다.

現在 OPC는 産業機器의 輸出로서 얻은 結果로 새로운 專門經營 技術 開發과 啓發에 總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今年度 OPC의 括目할 만한 新製品으로서의 컴퓨터 關聯機器 입

니다.

政府의 5次 5個年 計劃에 半導體, 컴퓨터, 通信機器가 重点 育成 品目으로 採択된 現實에 符合한 開發 製品이라 判斷되며 이미 지난 3年間 이 分野에서 CRT 터미널 輸出로 世界 市場에서 認定받아 온 바 있는 OPC는 이 分野에 對하여 繼續的인 新製品 開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電子交換機와 데이터 通信 分野에 있어 컴퓨터 技術은 核心 技術일 뿐만 아니라 防衛 産業用 通信機器에 있어서도 最新 컴퓨터 技術을 應用하지 않고는 調期的인 通信網을 構築할 수 없다는 判斷아래 OPC가 지난 5年間 集中 投資한 것은 先見之明이 있는 決定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81年은 컴퓨터 技術 蓄積의 副産物로서 全電子式 私設 交換機의 輸出開始, 새로운 모델의 CRT 터미널 輸出, TTY (軍用) 開發·生産, 컴퓨터 交通管制 시스템 設置, 마이크로 컴퓨터 輸出, 農漁村用 電子交換機 設置 稼動 (원당, 구리) 등이 있었습니다.

가) 研究 : 앞으로 OPC는 이 分野 開發에 더욱 全力 하고자 하

여 年間 相當額의 開發資金을 OPC 中央 研究所에 投資하여 技術 能力 培養에 最善을 다할 것이며, '82年 부터 미니컴퓨터 組立을 試圖하여 '86年度에는 完全 國産化가 이루어진 미니 컴퓨터를 生産하게 될 것이며, 電子式 키폰시스템은 今年부터 美國에 輸出하게 되었습니다. '82年 부터 本格的인 輸出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對한 技術 蓄積은 農漁村 交換機 組立 生産 및 開發에 있어 礎石이 되며 技術提携時 收容 態勢를 갖추게 되는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나) 生産 : 産業用 電子 機器와 一般用 電子機器의 輸出을 比較해 볼 때 品質管理 側面에서 어려움이 많고 信賴度를 높이기 위한 投資가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尙后 生産 技術의 高度化를 爲한 投資도 繼續하여 이제껏 維持해 온 信賴度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 輸出市場 開發 : 輸出市場 開發은 良質의 세일즈 엔지니어의 發掘과 養成에 主力하며, 現地 駐在員과 去來先을 통한 技術資料 入手 및 製品의 選好度를 迅



速히 把握하므로써 製品 開發과 生産에 攄드-백 (FEED BACK) 되는 積極的인 市場開拓을 해 나갈 것입니다.

라) 電子振興을 爲한 提案 :

1) 国内 電子 製品의 市場與件을 造成키 爲한 政府 次元의 積極的인 努力이 切實히 要望되는 時期 입니다.

産業用 電子機器의 国内 需要를 充足시킬 国産 機器의 性能은 先進國의 製品에 比하여 多樣性과 流通 過程에서 엄격히 制限받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습니

다. 先進國들의 技術保護 政策과 自國內의 市場 保護로 더욱 어려운 與件에 부딪쳐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現實은 아직 그렇지 못한 段階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 電子 産業에 對한 政府 次元의 投資가 先行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 나라 日本은 半導體, 컴퓨터, 通信機器에 對하여 國策 事業으로 選定한 後 30余年間을 꾸준히 投資하여 半導體는 美國을 능가하는 結果를 낳았으며, 컴퓨터 開發에 있어서도 成功하고 있는 事例를 우리는 잘 보고 있

습니다.

結局 우리는 勞動集約的인 電子 産業으로 지탱해 온 過去 10 余年間의 與件으로부터 脫皮하여 技術集約的인 産業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안되는 現實에 놓여 있음을 勘案할 때 電子工業에 同 參하고 있는 OPC로서는 政府의 5次 5個年 經濟 開發에 積極參與할 覺悟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이 期間內에 政府의 積極的이고 効果的인 結果이 뿌리 내리기를 懇切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部品産業의 國産化 一線에서

金 馥 九  
(株)韓國마벨 常務理事

多事多亂했던 1981年을 보내면서 몹시 어려웠던 한해였음을 새삼 느낀다. 1980年 後半부터 漸次 下降景氣를 보이는 듯 했으나 美國의 새로운 景氣 浮揚을 레이전大統領의 新政府에 期待하면서 81年을 맞이했으나 期待했던 景氣回復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설마 설마 하다가 한해를 다 보내게 되었다. 다가오는 1982年에 거는 期待도 不透明한 가운데 送旧迎新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心境은 錯雜하다. 電子工業에 몸담아 오면서 느끼는 우리 모두의 어려움은 內需 市場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国力은 역시 그나라 人口와 比例한다고 했다. 人口가 많으면 그만큼 購買力이 커지고 따라서 內需市場도 그만큼 커질 것이 아닌가. 즉, 內需 市場이 작은 基盤에서 電子工業의 發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새삼 설명할 必要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企業의 努力으로 克服하기 어려운 障礙 要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弱한 內需基盤 때문에 처음부터 輸出爲主로 海外市場에 뛰어들었으니 그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內需 市場에서

다져지지 못한 가운데 品質競爭, 價格 競爭을 해 왔으니 얼마나 無理가 따랐겠는가. 뿐만아니라 基礎素材, 精密金型 等 關連産業의 落後가 國際競爭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 電子工業도 業界의 새로운 覺悟, 政策의 一大 전환 등 官과 企業이 혼연 일체가 되어 電子 産業 跳躍의 새로운 契機를 맞이할 때라고 생각한다. 全電子 産業 分野에 걸쳐 日本勢가 全世界를 席卷하고 있는 産業環境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方向 전환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脆弱點을 다시 한번

反省하여 可能한 것부터 하나 하나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하겠다. 이미 常識化된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도 勞動集約 分野에서의 國際競爭力 유지는 그 限界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勞動集約度を 極少化할 수 있는 生産工法の 開發, 工程改善, 적극적인 省力化 등에 우리의 모든 經營 및 管理 努力을 總集中 하여야 하겠다.

電子産業이 당면한 成長 障害 要因이 分野別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電子部品 分野에서 본 몇가지의 問題點을 여기에 辟력하여 反省의 契機로 삼는 同時 당국에 對한 政策建議에 代하고저 한다.

먼저 分野別, 業種別로 選別 育成이 될 수 있도록 政策的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內需市場 基盤을 의면하고 企業의 成長을 期待할 수 없는데 과다한 亂立은 企業의 健實한 成長을 期待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內需市場 規模를 감안하여 業種別로 對象 企業을 엄선하여 重点 支援하여 國際 競爭力이 있는 新品 業체로 育成시켜 나가야 한다. 新品 業체의 健實한 育成없이 우리 電子産業의 發展을 期約할 수 없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 아닌가. 選別 育成과 아울러 政策的 배려를 促求하고 싶은 것은 현재 國產部품이 生産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名目으로든지 輸入을 禁止시켜 國內 業체를 保護해야 한다. 현재 輸出用 原資材인 경우는 國產品이 있는 데도 輸入을

開放하고 있는 實情이다. 물론 國產品이 要求 品質을 滿足하지 못한다거나 要求 규격에 未達 내지 相違할 경우에는 부득이 輸入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輸入을 규제하여야 한다. 우선은 곳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國產品이 多少 價格면에서 또는 納期면에서 不利한 경우라도 國家的인 側面에서 또한 巨視的인 例面에서, 國產品을 애용하는 企業 스스로의 良識과 制度的인 對策을 거듭 促求한다. 微視的인 생각으로 國產品을 外面하다가 終局에는 外國部品 業체의 窺포에 휘말려 우리 全電子産業界의 將來를 망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가지 우리 電子部品 業界가 당면하고 있는 큰 障害 要因이 周辺 關連産業의 落後性이다. 특히 基礎素材 産業과 精密 金屬 産業의 落後가 가장 큰 애로事項이다. 適期에 必要한 素材, 必要한 金型을 確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外國에서 輸入 하여야 하기 때문에 納期가 지연되고 高率의 關稅를 무는 등 原價 압박과 國際 競爭力 弱化的 要因이 되고 있다.

素材 産業과 精密金型 産業의 開發이 부진하고 技術 축적이 늦어지는 데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역시 內需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現在の 상태로서는 國際 競爭力이 있는 精密

金型 産業의 出現을 期待하기 힘들다고 본다. 우리의 內需基盤이 어느 水準 以上에 到達할 때 까지는 政府에서 國營 專門 業체를 設立 運營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勿論 特別法을 制定하여 충분한 지원하에 國際 競爭이 가능한 品質과 價格의 精密素材 및 精密金型을 마음 놓고 適期에 供給받을 수 있어야만 電子部品の 開發이 促進되고 急速한 成長을 期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가지 部品 業界의 問題點은 設備의 考朽化와 落後化이다. 現代의 最新設備을 早速히 導入하여 品質과 生産性 向上을 통한 국제 경쟁력 提高를 促進 시켜야 하나 高率의 關稅장벽 때문에 施設投資가 너무 過多하고 높은 金利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점차 弱화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차제에 當局의 과감한 對策을 促求한다. 輸出用 製造品과 開發施設은 國產이 불가능한 것은 어떠한 施設이든 關稅를 完全히 철폐하고 施設 資금을 特別金利로 信用貸出할 수 있도록 制度的 支援이 必要하다고 본다. 當국의 과감한 育成 對策을 거듭 促求한다. 새해에는 그 동안에 業界가 못다한 일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나갈 작정이다. 政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電子部品工業 育成 方案을 研究하여 치밀하게 支援對策을 適時에 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81年을 보내는다.

# 品質管理를 통한 제품의 고도화

李 在 熙  
天一社電子(株) 영업부장

세계의 무역 환경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81년도 세계 무역량은 80년도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82년도 무역 사정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선진제국의 보호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자시장도 미국市場의 不況이라든지 구라파 市場에서 또한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중에서도 고금리 정책과 이에 따른 구라파 지역의 화폐가치 하락 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선을 넘어선 하나의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오일쇼크로 경제적으로 많은 지장을 받아온 적이 있으나, 本人이 보기에는 통화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제 2의 오일쇼크에 겹쳐 우리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국내경기 또한 심각하게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수출이란 중

전의 불량 위주의 수출에서 「質의開發」을 통한 고급화에 주력하고 가격과 품질로 경쟁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전자기술은 급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제시장에서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방과 카피 시대의 방법을 벗어나 한국적인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제 2 도약의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 2의 경제 도약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품질관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품질관리 기법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있지만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민족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기체와 같은 조립 방법으로 동일한 재료를 쓰면서 제품의 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의 문제로 성실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드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의 질이 높아져야 품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독촉만으로는 힘든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축적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 교육 방식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본사를 방문한 日本 N社 직원에게 귀사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품질관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직무중에 체크하여 개선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중에 벌써 Q.C가 도입되어 체질화 돼버린 것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품질관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성급히 덤비지 말고 계획성 있게 차분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이 길만이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 확신 합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은 내수기반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81년도 국내 전자시장은 컬러 TV의 국내 판매를 계기로 다소 움틀거리기 시작했으나 경기 침

체로 인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잠정적인 특소세 인하 등의 배려가 있었고 82년도에 VTR을 비롯 소형 컬러TV와 음향기기 등에 특소세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있습니다. 국내의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는 필사의 몸부림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세계상의 지원 체제

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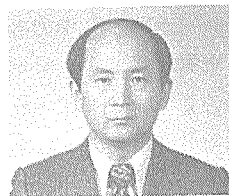
수출 산업의 금융코스트를 저하시키는 방안으로서 수출금융의 투자 비율을 과감하게 확대함이 소망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수출금융은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우리가 수출 전선을 갖고 있는 이상 수출금융도 수출전선과의 연관성 위에서 거론함이 옳은 것인즉 국제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자비율을 1.12조치 이전 수준의 90%

선까지 확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리 또한 일반 금융을 의식하지 말고 경쟁국의 수출금융 금리와 경쟁력을 갖게끔 각별한 배려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세계 경쟁 여건에 우리의 수출 대열을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강인하고 독특한 우리의 체질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 새로운 發展 단계로 도약한 한해



이 중 수  
亞南電器(株)販賣部長

今年初 우리들은 새 歷史의 開幕과 더불어 흥분과 期待로써 大望의 80年代의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바 있었다. 全体 國民들과 함께 우리들은 그간의 政治의 不安 및 世界的인 景氣沈滯 等 惡條件에서 헤어나 다시 한번 우렁찬 再排戟을 宣言하고 온 民族의 精氣와 衆智를 모아 先進國으로서의 大韓民國의 位置를 鞏固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고, 81년의 첫 章을 넘기면서 一大跳躍을 爲한 大前進의 巨步를 내디뎠으며, 民族의 合唱은 우리의 아름다운 錦繡江山 곳곳에 메아리짐을 느꼈었다. 金石을 뚫는 우리들의 意志와 새로운 覺悟, 民

族의 團結과 더불어 이제 그 民族의 大合唱은 絶頂을 이루고 있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 보는 우리들의 祖國은 정녕, 어느 사이엔가 그 原動力과 潜在力이, 무서울 程度의 巨大한 힘을 形成하고 있고, 따라서 머지않아 先進隊例에 參加할 수 있을 것임을 確信할 때,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기쁨을 滿喫하게 된다. 이 겨울의 誇랑케 맑은 蒼空 저 너머로는 跳躍을 爲한 메아리가 이 瞬間에도 歷歷히 들리는 듯하며 차가운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落葉은 그간 1年間の 우리 民族의 勞苦에 찬사를 보내며 다시금 새로운 誕生을 祈

願하지 않는가.

이렇듯 보람차고 有益했던 81년이 이제 서서히 스러져 감을 보면서 나는 나 自身の 成長, 社會社에 對한 成長, 變化 等 모두가 보람되고 가슴 뿌듯했던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기쁘게 맞이하려 하는 것이다.

1973年 以來 오랫동안 日本 松下電器와의 合作投資 形態로부터 技術 제휴 形態로 轉換한지 1年을 맞은 今年 81年이 特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일도 많았고 한편 괴로운 일도 많았던 한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松下제품 中, T.V와 Hi-Fi Audio Sys-

tem을 主宗商品으로 生産, 全量 輸出하고 있던 우리들은 昨年 年末의 国内 Color TV 放映 開始 以後 特히 括目할 만한 成長을 記錄했음은, 既存의 市場体制를 本格的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実情 等を 勘案한다면 무척 자랑스런 일이었으며, 이 모두 全社員의 汗결 같은 精誠과, 이에 더불어 松下와의 오랜 合作期間을 通해 터득한 Know-How 「Quauty The Supreme End」라는 모토 아래 全社員이 一致 團結하여 더 좋은 製品, 가장 優秀한 製品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간절한 勞力의 結果였다는 事實로서, 다시 한번 全社員의 勞苦를 고맙게 생각한다. 国内 最初의 Color TV 生産, 輸出業체로서의 自負와 긍지를 지닌 우리 회사는, 그러나 그간의 弘報宣傳 活動이 貧弱했던 点이 事實이었으나, 是近들어 品質의 優秀性에 對한 Image Build up으로 認識이 向上 되었으며 弘報活動의 強化로 그 聲價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음 또한 全体 社員과 더불어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렇듯 向上된 IMAGE를 바탕으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보다 더욱 眞摯한 姿勢로서 競爭力을 提高시키기 爲한 各種의 切實한 戰略을 樹立하여 需要者의 要求에 積極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優秀한 製品을 값싸게 供給하는 理念을 實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技術을 積極 導入하고 새로운 商品을 繼續적으로 開發함으로써 製品의 多樣化를 期하며

그러기 爲하여 技術 및 各分野에서의 專門家의 發掘, 養成에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

“世界속의 韓國—世界 市場 속의 亞南”을 이룩하기 爲하여 우리 회사는 經營의 根幹을 이루고 있던 輸出 戰略을 再點檢하고 迫車를 加함으로써 繼續적인 輸出 實績 追求에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海外 市場에서는 이미 우리 회사의 IMAGE가 松下를 通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 既存 市場을 除外한 새로운 市場의 積極開拓으로 크게는 國家의 要求에 따르고 작게는 우리 회사의 利潤을 追求해야 한다.

輸出을 爲한 長期的인 基盤確保가 곧 資産의 큰 一部로서 作用을 함으로, 輸出에 있어서 初期 段階의 과정은 利益보다는 輸出 實績에 比重을 賦與하고, 새로운 戰略을 通하여 體質과 性格을 變化 시키는 一面, 全社員의 國際적인 感覺을 必要로 하게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主로 日本 松下의 既存市場에 對한 供給이 爲主였으므로 獨自적인 市場開拓을 爲한 準備가 소홀했던 感이 없지도 않으나 이제야말로 市場開拓 및 輸出 增大에 全 社員이 舍心하여 本格的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Hi-Fi AUDIO SYSTEM이나 TV 分野 모두가 그 技術 開發의 速度는 실로 눈부신 實情이므로, 特히 輸出 市場을 爲하여는 新製品의 開發이 가장 重要視되고 있고, 特히 TV分野에 있어서는 價格 競爭力을 바탕으로 最大의 市

場인 美國을 中心으로 成長하여 왔으나 지난 79년 以後 OMA의 適用으로 相當한 制約을 받게 되었던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事實이거니와 우리 나라의 TV수출 대상 市場은 이를 계기로 최근 COLOR 방영을 개시하고 있는 중남미시장 중심의 市場 多變化 勞力의 結果로서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지만, 政策적인 次元에서나 企業의 次元에서 좀더 多角적인 方向으로 新市場 開拓에 積極 勞力해야 하며 우리 회사도 亦是 이러한 方向으로 經營方針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또한 全世界 COLOR TV 放映 방식의 分布에 있어서도 '78년의 경우 NTSC 55.6%, PAL 33%, SECAM 11.4%로부터 PAL 방식과 SECAM 방식의 成長率이 높아 오는 '85년에는 NTSC 방식이 49%, PAL 방식이 30.4% SECAM 방식이 29.5%의 占有率을 차지 할 것으로 予想되기 때문에 이들 방식 特히 PAL SYSTEM의 生産, 輸出 免許를 取得하여 PAL SYSTEM 放映 國家에 對한 輸出도 開拓해야 할 것이다.

産業構造 全般的으로 볼때 우리 나라의 賃金水準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相對적으로 自由中國, 싱가폴 等地에 比해 價格競爭力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強力한 對應策과, 國家의 稅制 및 金融 支援이 切實히 要求되고, 技術 開發과 海外 After Service 体制 等에 對한 國家적인 支援策이 時急히 要請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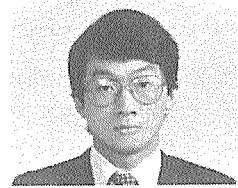
있는 것이다. 한편 企業은 部品의 品質改善, 徹底한 品質 管理 및 生産管理를 通하여 原価 切減을 이룩하여야 함은 勿論, 製品의 品質 高級化와 海外 弘報活動 強化로 長期的인 対策을 세우고

販買基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보람찬 한해, 1981年을 보내고 '82年을 맞이하면서, '88 서울 올림픽 開催 決定, 아시안 게임 誘致成功 等 以上の 民族의

統一과도 같은 커다란 幸運이 있기를 期待하면서, 다시 한번 社會를 爲하여 勞苦를 아끼지 않은 全社員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고 電子振興 發展에 애쓰는 振興會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GS6의 Computer 生産으로 기술축적을 쌓은 한해



전 석 진  
金星半導体(株) 製造 3 部

한해의 밑알을 얻기 위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들여 가꾸어 결실의 열매를 맺을적에 그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듯이 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피나는 연구개발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특히 전자산업을 Lead하는 컴퓨터 부분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금성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금성사, 금성통신, 금성전기 등의 컴퓨터 사업을 일원화, 1979년 11월 설립되어 그동안 해외기술연수 및 컴퓨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수집 설계도면 등을 연구 검토해 왔지만 막상 실전에 임하고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고민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 요원들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검토해 가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산 컴퓨터 1호기를 생산해 낸 것이

다.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Gs Level 6 Computer는 금성반도체가 Computer 국산화의 첫 사업으로 미국 HONEYWELL社의 Level 6 Data Processing System을 기술도입 생산해 낸 것으로 이 제품은 기종이 다양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이 쉬운 완전 모듈화된 시스템으로써 업무처리 방식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미니 컴퓨터 시스템이다. 우리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GS LEVEL 6 컴퓨터 1호기가 제11회 한국전자제품 신개발 및 신모델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이 국가 산업발전에 좀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분투, 노력의 체적질이라 믿으면서 국내 산업의 전산화 확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국산화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미개발 사항—

우선 전자산업의 기초이며 꽃이라 불리우는 반도체를 들 수 있다. 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비롯 컴퓨터, 통신기기, 방위산업용기기 등 고정밀을 요하는 전자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직접회로 설계 및 제조기술과 HIC제조기술은 미래 산업발전의 주축을 이루는 분야가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제조기술의 부족 및 길지 않은 역사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제 겨우 걸음마를 벗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은 기업 단독으로 추진키 어려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LSI, VLSI 등 대규모 집적회로의 설계 제조기술을 하루빨리 축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선진각국에서는 종전의 PCB들은 양면기판으로 제작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진 일보하여 한장에 3~4면의 다층기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능 또한 아주 정밀하고 좀더 Compact하게 제작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술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제 기술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술혁신은 놀랄만큼 고도화되고 가속화되어 자동화, 초정밀화, 소형경량화 현상이 산업분야에 걸

쳐 발전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개발 역시 반도체와 병행되어야 급증하는 정보 산업 분야의 국내 수요를 충족해야 할 컴퓨터 국산화의 지름길이 아닌가 본다.

세계로는 컴퓨터의 두뇌(센추럴 프로세스 유닛)들을 보조해주는 주변기기(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또한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섬세, 정교, 정밀 하여야만 이들을 따라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름발이 전자산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 산업기술을 빠른 시일내에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의 양성, 기술 집약적인 산업 형태로의 변환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기업은 미시적인 안목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서 연구개발 분야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적인 연구 활동에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다.

### 韓国필름콘덴서 研究組合 발족

80年代의 韓國電子工業의 高度化를 위한 方向 전환의 일환으로 電子部品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Myler Condenser 業체가 지난 11月 26日 共同으로 모임을 갖고 研究組合을 結成하였다. 이는 協同化를 통한 技術의 共同開發을 우선으로 하면서 先進國에 비해 뒤 떨어진 施設의 개선 및 省力化 設備의 國産化로 機械工業 發展에 기여함과, 技術 卓越 및 品質向上을 이룩하여 原価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번 발족된 研究組合에 참여한 業체는 다음과 같다.

\* \* \*

\* C. N. S商社(株) : 代表理事 車俊德(이사장)

\* 端進電子工業(株) : 代表理事 高明哲(감사)

\* 鮮·日 電子産業(株) : 代表理事 南宮鎮

\* 進栄電子(株) : 代表理事 趙淑来